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응원합니다.



<https://youtu.be/63LuhMbNofM>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Incheon @educat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2018 봄 제12호

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04



20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제12호



28



44

Contents

2018 봄 제12호

표지 이야기	04	유아교육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08	즐거운 수학? 즐거운 수학에 없는 수학 수업
	10	쉽고 속 시원한 에듀콜라! 새내기 교사라면 더욱 공감할 이야기
	14	꼭꼭 짚어보는 자유학년제
	16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준비
	18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0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보건샘의 작은 방송국
학교 돋보기	24	우리가 추억하는 2017, 우리가 희망하는 2018!
	28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까요?
정보	36	웹툰 _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캠페인	38	우리는 보통의 친구입니다.
	42	무료교육? 무상교육?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다
학생기자 리포트	44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인 학생들에게
공감	48	청렴편지 릴레이 _ 우리교육청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도서관 소식	50	인천공공도서관 최초 북카페형 열람실 인천부평도서관 '휴앤북'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편집인 공보담당관 박자흥
기획 및 편집 김민경, 강경은, 김진철
사 진 이예슬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 화 032-420-8125
디자인 중앙프린텍(T. 032-883-8195)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2018-0021



Cover Story

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1학년이 된 인천첨단초등학교 김유빈 학생은 호기심과 설레임이 가득하다. 한 뼘 더 자란 키와 의젓해진 마음. 학교는 어떤 곳일까? 두근두근 설레는 3월, 인천교육가족 모두가 기대하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소식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천교육소식(<http://www.ice.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을 소개합니다

글/유진희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사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인천 유아교육의 구심체로
가정과 유치원,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유아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2012년 3월에 개원하여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교육자료 대여, 유치원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새롭게 이전 개원 예정이며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백석초등학교 부지로 이전 한 유아교육진흥원은 연수동, 체험동, 실외놀이시설을 갖춰 설립함으로써 교원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연수와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만 3~5세 유아들에게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체험시설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ㄴㄴ 2018년에 있을 유아교육진흥원의 많은
변화와 놀라운 체험을 소개합니다.ㄴㄴ

첫째, 즐거움, 배움, 인성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인 유아 놀이 체험시설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인천의 지역적 특색,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공간을 구성합니다. 실외에는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살려 모험과 도전이 있는 놀이터를 마련합니다.

둘째, 유아교육진흥원 캐릭터

하늘과 바다, 자연환경을 상징적으로 내포한 우리들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와 누리’ 캐릭터가 생깁니다.



셋째,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교원 대상으로 직급별 정책연수, 생애주기별 직무연수, 누리과정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설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교실, 학부모 동아리, 가족지원 프로그램, 유아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넷째, 교육자료실 대여사업

유치원에서 구입, 보관하기 어려운 교육 행사용품(무대막, 각종 의상, 동물탈인형, 줄인형 등), 간식 제조기계(팝콘 제조기, 빙수 제조기, 와플 제조기, 비누방울 기계, 솜사탕 제조기 등), 소도구(전통 교재교구 등)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물품을 확보하여 대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평가 지원

누리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체제 구축 및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통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환류 합니다.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여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유아교육활동 지원

교사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재교구를 개발하여 유치원에 보급하고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이 협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인천 유아교육의 구심체로 가정과 유치원,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유아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건전한 유아놀이 체험문화 확산 및 인천교육 만족도가 제고되고
- 생태환경 놀이 공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모델을 제공하며
- 유아체험활동을 통해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수학? 즐거울 수밖에 없는 수학 수업

글/안해룡 인천대화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4학년 되니 수학이 어려워져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가 생긴다고 한다. 새 학기 학부모 상담을 하면 아이가 수학이 어려워져서 흥미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잘했던 아이들이 싫어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수업 자체가 재미없어서일까? ‘수학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수학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린다. 바로 이 불안감 치유가 열쇠이다.

‘조용한 교실, 이어지는 설명과 문제풀이, 정답 확인’ 학부모님들이 경험한 수학수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수학교육은 답을 구하기 위한 공부 쪽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공식에 넣고 풀어내는 과정으로 ‘답을 구하기 위한 공부’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의 수학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하는 놀이는 수업과 별개의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했던 놀이는 금방 흥미를 잃게 되고 교사는 새로운 놀이를 계속 찾게 되지만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놀이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 이에 수학 수업 속에 숨어있는 놀이요소를 찾아 이를 통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수학수업을 하고 수포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중이다.

‘조심조심 전달해요’ 놀이로 막대그래프의 이해하기

젓가락으로 콩이나 작은 사탕을 옮기는 게임은 흔히 젓가락질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놀이다. 놀이 습득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듈과의 경쟁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활동 자체는 수학적이지 않지만 놀이의 결과를 처리하면 수학적 내용과 이어지게 된다. 조심조심 전달해서 모아 놓은 것을 작은 메스실린더에 넣으면 막대 그래프처럼 높이를 통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 눈에 볼 수 없었던 놀이의 결과가 모듈별로 메스실린더를 모아 놓는 순간 막대그래프처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순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수학과 놀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커진다.

수직과 평행을 활용한 미로 만들기

수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주로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수학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이들은 성냥막대와 하드바(넓적한 나무막대)로 수직과 평행에서 배운 내용을 자유롭게 미로 형태로 표현한다. 모듈별로 주어진 교구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미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배웠던 내용을 반복하여 생각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고 결합하는 사고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이후 이어지는 서로의 결과물을 감상하는 과정은 놀이로서 미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주게 된다.

현실의 문제를 통계활동으로 해결하기

가정, 학교나 학급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도서관에 필요한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일, 현장체험학습의 장소를 결정하는 일 등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찾아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과 이를 통해 나오는 결과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신체활동과 결합한 칠교놀이

칠교를 릴레이 형식의 단순한 조각 모으기 활동과 결합하여 수학 수업에서 쉽게 느끼지 못하는 스틸을 경험하게 했다. 그 사이 기다리는 학생들은 서로 협동하여 몸을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했다. 수학 수업에서 이러한 놀이의 구조를 활용했기 때문에 즐거움은 더 커졌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학년이 올라 갈수록 내용도 어려워지고 다양한 활동을 적용하여 흥미를 찾는 수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수학교육의 새로운 모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컴퓨터처럼 계산하는 능력이 아닌 컴퓨터를 일하게 하여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에 우리의 수학교육도 아이들이 수학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수학교육으로 변화해 가길 기대한다.

쉽고 속 시원한 **에듀콜라!** 새내기 교사라면 더욱 공감할 이야기

교실, 문제해결, 일상, 수업비평, 미래교실, 업무팁, 사유, 학급살이 등
교육에 대한 사유와 비판, 일상에서의 소소한 문제와 걱정,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고민까지
새로운 교육미디어 플랫폼 ‘에듀콜라’가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글/교육홍보팀 사진/이예슬

에듀콜라는 김연민(인천부현초) 편집장 외에 김진영(인천금마초) 교사, 도대영(인천도화초) 교사 등이 의
기투합해 시작했다. 이들은 오롯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2015년 2월 4일 ‘에듀
콜라’를 오픈했다. 에듀콜라는 ‘교육(에듀케이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협업(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의미이다. 대화를 뜻하는 ‘톡(Talk)’을 많이 나누자는 뜻과 함께 ‘톡톡’ 쏘는 콜라를 연상케 하는 중의적 표
현을 담고 있다.

서로의
특별한 능력을
말해주세요.

살짝 굳어있는 윤활유 같은 면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능력이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소규모,
네트워크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좋아해요.



김진영(인천금마초 교사)



도대영(인천도화초 교사)



김연민(인천부현초 교사)

흔들리거나 후회하지 않는 점이예요.
실패해도 앞으로 잘 나아가요.
강가에 세워 놓은 말뚝 같아요.
우리 사이에서 기준점이 되어주죠.

소심한 성격이어서 일을 추진할 때 많이
여쭙해요. 실패확률이 낮은 것을 주로 해서
실패를 안 하는 것 같죠.
역할을 잘 나누고 상황통제, 철저한 준비,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Educolla

게시글
1,279개

방문자 수
98만 명

회원수
1,441명

※ 2018년 2월 현재

‘콜라’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콜라, 설탕과 카라멜이 탄소와 적절히 섞여 일시적인 갈증해소와
청량감을 주는 음료.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음료. 잘 알지만, 가끔 그 음료를 꼭 들
이키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밤 밤새 일을 하고나
서, 배고파서 주문한 치킨을 허겁지겁 먹을 때, 가끔은 캔을 따며
들리는 ‘톡’소리가 그리워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
다. 단, 아무리 들이켜도 해롭지 않은 그런 존재 말이지요.

애착 가는 글을 소개해주세요.



김진영

영화, 디스크를 만나다. - 미션, 반드시 퇴근하라

마션을 패러디 한 글이에요. 에듀콜라를 시작할 때,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렵고 진지한 일이니까 더욱 쓰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가볍게 친근하게 글을 쓰자는 의도와 솔직하게 쓰자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당신의 교실이 실패하는 이유 - 친구가 되려는 교사, 땀 서늘이 될지이다

독자들이 많이 읽어주신 글이에요. 친구가 되려는 교사에게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면에서 살펴보고 공감 많이 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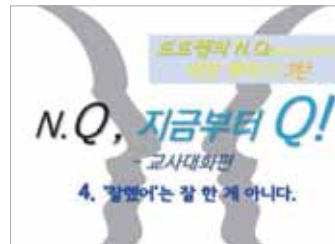
김연민



도대영

N.Q, 지금부터 Q! '잘했어'는 잘한 게 아니다.

칭찬의 본질과 교육의 목적,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약점에 대해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았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하는 가장 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 저학년은 '착하다'일 듯하고 고학년은 '잘했어'일 것 같다.

왜 이 말들을 자주 사용할까? 어떤 저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칭찬은 듣는 학생에게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크다.

“(선생님의 말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하다니) 착하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칭찬해 줄 거야.)”

“(내가 기대한 대로 하다니)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

교사는 기준을 만족시킨 학생에게 칭찬을 할 것이고 학생은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못했다면 자책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다 낙담을 많이 하게 되고, 커갈수록 본인이나 또래 집단의 기준에 더 가치를 두어 교사의 기준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잘했다’는 말은 잘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 2017. 6. 28. <‘잘했어’는 잘한 게 아니다.> 글 중에서

교육을 공통분모로 진지하게 혹은 가볍게 웃으며 스크롤을 내릴 수 있는 곳, 차갑게 혹은 뜨겁게 나만의 교육 이야기를 내뿜으며 이야기 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교육·전문·감성·커뮤니티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모든 선생님들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감을 얻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초기 고민은 필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주제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르지요. 하나의 획일화된 방법은 지양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형식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수업 디자인, 토크콘서트와 같은 형식으로 현장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명사나 스타가 되지 않고 지금처럼 순수하고 솔직하고 싶어요.

영화 ‘타짜’ 같았으면 좋겠어요. 배우들의 각각 개성 있는 연기를 하는 점이 좋아요. 주연이 있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가득한 기대주들이 모여서 열려있고 나누며 다양한 재미가 있는 곳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에듀콜라와 비슷한 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회피하고 싶어요. 교사들은 무엇이든 잘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하지만 탁월함보다 꾸준함을 가졌으면 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있건, 없건 서로 독려하며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듀콜라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갈증’으로 시작했습니다. 덧붙여, 교육(Education)을 주제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협업(Collaboration)을 에듀콜라(Edu + Colla)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교육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밥을 먹는 일처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간 고유의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듀콜라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함께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공통분모로 진지하게 혹은 가볍게 웃으며 스크롤을 내릴 수 있는 곳, 차갑게 혹은 뜨겁게 나만의 교육 이야기를 내뿜으며 이야기 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교육·전문·감성·커뮤니티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수 십 여명의 에듀콜라 집필진들과 바른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듀콜라는 언제나 당신의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 에듀콜라 안내문 중에서 -



에듀콜라에서 더 재밌고 속 시원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https://educolla.kr>

꼭꼭 짚어보는 자유학년제

글／이성숙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2018학년도부터 자유학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자유학년제의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확대 정책은 교실 혁신을 통한 공교육의 혁신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다.

자유학기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은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 교사의 수업 역량, 학부모의 학교교육 신뢰도가 향상(KEDI, 2016)되었고, 학생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로 교실수업이 변화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적합한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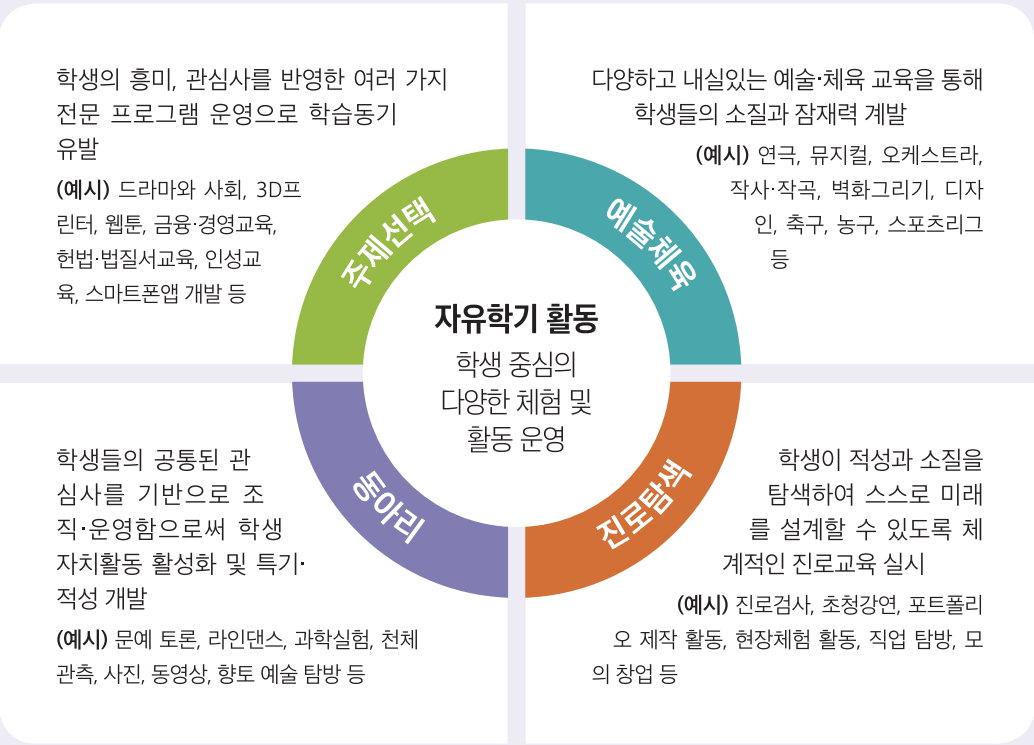
우리교육청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018년도에는 총 69개교(약 52%)가 자유학년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담당교사 연수 등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또한 연구학교(3교) 운영을 통해 적합성이 높은 인천형 자유학년제 모델도 구안하고자 한다.

한 눈에 보는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

구분	자유 학기	자유 학년
학기 설정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 1개 학기만 자유학기로 설정	1-1학과 1-2학기 2개 학기를 모두 자유학기로 설정
활동 영역 설정	자유학기 1개 학기에 170시간 이상, 4개 영역(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을 모두 설정하여 입력	자유학기로 선택한 2개 학기에 입력한 총 시수의 합이 221시간 이상, 학기별 설정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 4개 영역 입력
평가 결과 기록	자유학기에 교과 성취도 미산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	자유학년에 교과 성취도 미산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근간으로 학생활동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을 1, 2학기에 걸쳐 총 221시간 이상 운영한다. 자유학년제에서는 자유학기제와 동일하게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수업 중에 학습의 과정을 관찰하거나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자유학년제 기간의 평가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제외한다.

‘자유학기 4개 활동’ 개요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12월, 2018년 자유학기(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창의성·감성·시민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중심, 성장 중심, 역량중심, 주제중심 교육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연계되는 청사진까지 담고 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주제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운영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전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와 준비

글/최영선 인천신흥고등학교 교감



나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딸들에게 일자리를 ‘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토머스 프리드먼, 늦어서 고마워, 2017, 9쪽)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입니다.

학점제 도입의 기대

아이러니하다.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학교 교육에 많은 불만을 쏟아내다가도 정작 바꾸자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머뭇댄다. 교육 ‘개혁’의 주장이 멀게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논의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친다면 벌써 20년 넘게 그러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블록체인이니, 비트코인이니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과 용어가 등장하고, 고등학생수가 '16년(175만 명) 대비 '22년(122만 명)까지 31%가 감소되는 격정스런 통계에 직면해서도 학교는 여전히 어제와 같다. 변화를 위한 무수한 시도가 좌초되거나 잔영으로만 남아 있다.

‘고교학점제’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학점제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처럼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학생 선택 중심을 표방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운영 등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정책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요컨대,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학사제도로써 학점제의 새로운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학점제의 제도적 요건

학점제는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과정, 평가제도, 졸업제도가 다음과 같이 추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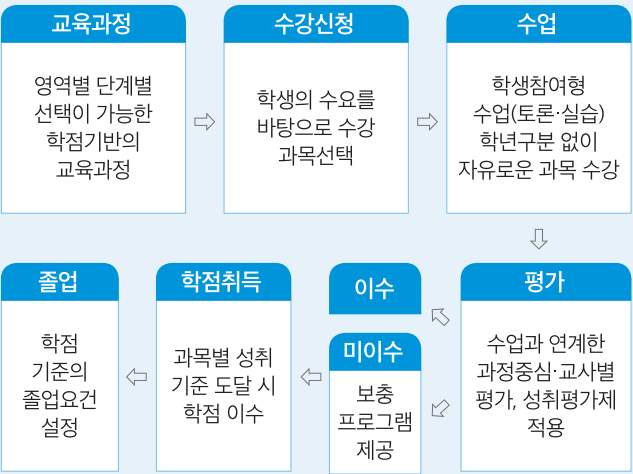
| 교육과정 |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하여, 학력(자격)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필수 이수학점 등 제시
(※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불가피)

| 평가제도 |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및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평가의 안착 필요
(※ 교원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 역량이 관건)

| 졸업제도 |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졸업이 아닌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졸업요건 설정
(※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 역량 구비)

또한 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과 이동이 기본 전제이므로, 교과교실제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학교는 개설과목 확대,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검색 및 자율 학습 공간 등을 확보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 (교육부, 2018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

학점제는 연구학교('18~'21) 운영으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인프라 소요 파악, 우수 운영 모델 확산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연구학교(제물포고, 선인고)와 선도학교(인천신흥고, 백석고, 부개여고, 신송고, 인천대건고)가 지정되어 2018년도부터 수강 신청제,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 등의 방안을 각 학교별 조건에 맞게 추진하게 된다.

인천은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학교 간 꿈두레 공동 교육과정 운영사례에서 보듯 학점제의 기초가 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단위 학교의 운영 우수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적 틀로서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모든 고등학교와 관련 관계자들은 다음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며 맞닥뜨릴 세상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 학생상** 타율적 관리의 수동적 대상
→ 자율적 존재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자
※ 자율(과목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이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교사상** 교과지식, 진학지도 전문가
→ 학생을 돕는 조력자, 교수학습 전문가
- 교육과정 운영** 학년/학급단위 운영
→ 과목을 선택한 학생그룹 단위 운영
※ 교원수급 상황에 따른 공급자 중심 편성이 아닌 학생의 진로, 적성, 흥미 등 수요자 중심 편성
- 교육다양성** 학교유형(자사고, 특목고 등)에 따른 선택(학교 간 서열화) →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수평적 다양화)
※ 타 학교/지역사회 등과 협력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의 적용이 가능
- 대입** 정량화·서열화 된 점수 기준
→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정성적 평가 강화)

이 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8 고교학점제 추진계획」(2018.1.)을 참조하였음.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글/유규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주무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데, 학교는 왜 안 들어오나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구역 제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이 속하는 통학구역 또는 학교군 내 기존학교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학생의 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 신설은 할 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학교신설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에 대한 강력한 학교 재배치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승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학교이름은 개교 전에 시민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명을 공모하고, 일차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모된 내용을 논의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교명을 선정하게 되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새로운 학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교명 선정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선정된 교명을 제안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새로운 학교의 교명이 지역적, 역사적 특색도 반영하고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펼쳐나가는 교육적 의미도 담기는 교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교명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라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설립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설립 승인, 인천시의회의 학교설립계획 심의, 예산 반영, 건축설계 및 학교용지 매입, 공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통상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설립 승인 이후 해당 학교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약 3~4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세움터 및 학교현황 등에 ‘개교예정학교 현황’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개교예정학교’는 정해진 개교일을 목표로 정상적인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에 학교가 먼저 지어질 수는 없나요?

교육부의 학교설립 요건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기존학교 유무, 기존학교가 있을 경우 여유교실 유무, 여유교실로도 부족할 경우 증축 가능여부 등을 조사해서 증축을 통해서도 배치할 수 없는 학생들이 약 800명¹⁾ 이상일 경우 학교신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지역 내 우선 개발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인근 블록들의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기존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통학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 이후 개발지역 내 공동주택이 입주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설 예정 학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설 예정 학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세움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ce.go.kr/sub/info.do?page=041808&m=041401&s=ice>

1) 800명은 교육부의 최소 학교규모 24학급에 교육부 기준 급당 34명을 적용한 학생수임.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보건샘의 작은 방송국

글/이연수 인천부평서초등학교 보건교사

우리 아이들의 미래 희망 1순위는? BJ, 유튜버
아이들의 미래 희망이 바뀌고 있다. 더 이상 과학자, 대통령이 꿈이 아니다. 정형화된 교실을 벗어나 변화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건강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런 우리들의 바람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선생님들에게서도 영상 잘 봤다며
연락이 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니 그야말로 효과 만점



건강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

첫 시작은 2017년 6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 문화를 바꾸는
시간 공모전」이었다. 공모전에 많은 보건선생님들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보건교사로서의 이야기와, 건강한 학교 문화
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발표하며 긴장되고 떨렸다.

이 공모전을 통해 보건교사들의 건강한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귀하고 값진 내용이었다. 이
를 좀더 다듬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싶
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건강 영상'을
보급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연수
기회를 확장했다. 매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보건교사 보수교
육 과정을 1인 미디어 과정으로 연계하여 꾸리고, 별도로 미디어
제작팀도 꾸려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직무연수도 받았다.
'BJ, 유튜버'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스마트폰과
인코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영상을 제작해 실시간으로 인
터넷 상으로 올리기까지 하였다.

어설피름 · 어려움 그리고 전해진 진심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
는 영상이니 폭넓은 계층이 보면서 유익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만
들어야 했다. 주제 잡기도 힘들고 시나리오 쓰고 대본을 외워 동
작과 위치, 시선 등을 고려해 연기까지 하면서 음악을 삽입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거치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 인터넷에서 내
가 만든 영상을 보는 것은 무척이나 흥분되는 경험이었다. 학교
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선생님이
나온다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어설피지만 열의를 담은 마음이
영상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된 것 같다.



뜨거운 반응과 더 큰 난관들

교사들이 직접 출연한 영상의 반응이 뜨겁자 더 내용이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자료로 만들고 싶었다.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미디어제작팀을 3팀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 영상에 대한 아이들 반응도 폭발적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촬영을 하였다. 그러나 의욕과 달리 영상의 완성도는 너무나 떨어졌다. 배우들은 너무 작게 나오고, 잡음이 많았다. 배우들 얼굴에 그림자도 많이 지고, 대사 중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편집하다 말소리로 다 끊어졌다. 결국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도움으로 전문 촬영 감독, 영상감독님의 컨설팅까지 받고 의지를 불태워 다시금 촬영에 돌입하였다.



힘들고 고되지만 더 큰 보람

방음벽이 설치된 곳에서 촬영을 해야 해서 모든 팀이 학교 방송국에서 퇴근 후 촬영을 하였는데 주연 배우들은 화장도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의상도 2~3벌 준비해서 주제마다 의상도 바꿔 입어 회별 차별화를 두었다. 근접 촬영을 위해 카메라도 2대 설치하고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반사판도 2개씩 각도를 조절하면서 촬영을 하였다. 대사를 외우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NG가 많아 촬영 시간이 길어졌는데 학교 보안으로 22시 상시전원을 제외한 모든 전원이 내려져 부랴부랴 숙직기사님께 양해를 구해 23시를 넘기면서까지 촬영을 하였다. 재촬영, 3차 촬영에 편집까지, 학교 방송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라 밤늦게까지 편



「보건쌤의 처방전」중에서, 김연숙(인천가정초 보건교사), 윤 희(인천학익초 보건교사)



「보건쌤과 함께 스트레칭 잘~했어요」중에서 이 선(인천미래생활고 보건교사)



「드라큘라 기침예방법」중에서 / 도예빈(좌), 박환경(우) (인천학익초 학생)



탄
생
시
한
리
즈
물

「보건쌤의 처방전」

「보건쌤이 알려주는 응급처치 보알응」

「보건쌤과 함께 스트레칭 잘~했어요」

집하고, 무료 효과음 찾아 넣고, 내레이션 녹음까지 했다. 영상에 필요한 그림과 애니메이션은 초상권 문제가 있어 선생님 한 분이 모두 삽화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영상 하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다.

가깝게 즐기는 건강문화「보건쌤의 처방전」

그렇게 탄생한 시리즈물이 「보건쌤의 처방전」, 「보건쌤이 알려주는 응급처치 보알응」, 「보건쌤과 함께 스트레칭 잘~했어요」 3가지 시리즈물 9편이다. 그 중 요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어 시리즈물 중 독감편을 제일 먼저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 몇몇 SNS에도 소개를 했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나날이 조회수도 늘어났다. 그래서 차근차근 배포하려던 계획을 미루고 감염병 예방을 주제로 다룬 「보건쌤의 처방전」은 3편 모두 인터넷에 업로드 한 상태이다. 인플루엔자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도 학생들 교육용으로 한 편을 배포했더니 아침 등굣길에 학생 한 명이 드라큘라 기침이

무척 재미있어서 시리즈물을 다 찾아봤다고 한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선생님들에게서도 영상 잘 봤다며 연락이 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니 그야말로 효과 만점. 1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만든 영상물이어서 내년에는 쉬려 했는데 늘어나는 조회수와 달린 댓글

을 보는 재미, 주위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니 내년에도 계속 만들어야겠다. 이미 경험한 노하우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년에는 어떤 Item으로 만들까? 오늘부터 나의 즐거운 고민이 깊어진다.

우리가 추억하는 2017, 우리가 희망하는 2018!

글/류진원 간재울중학교 교사



2017년의 끝자락 어느 날, 교내 합창대회 1등의 부상으로 받은 피자 파티로 우리 1학년 9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체구보다 여유 있는 새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주눅거리며 만났던 입학식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1년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니 시간은 정말 야속하리만큼 빠르다는 걸 새삼 느낀다. 사춘기 초절정의 소녀 감성으로 작은 일에도 함께 울고 웃었던 1학년 9반! 아무 때나 깔깔거리 선생님들께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친구의 아픔에는 함께 엉엉 울어주던 정 많은 학생들이다.

목청이 쉼 정도로 열창하여 이뤄낸 교내 합창대회 1등의 영광, 맛난 피자 상품으로 한껏 들떠서 시작된 파티는 갈수록 무르익었다. 지나간 한 해를 추억하고 후회도 하며, 다가올 2학년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에 대해서도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2017,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소희 너무 겁먹은 채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이제는 중학생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라’ 너무 겁을 주셨죠. 시간마다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다양한 친구들도 섞여있었죠. 긴장을 많이 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 후회되요. 동아리 신청, 진로체험 장소 선택할 때 하고 싶은 것 보다 친한 친구를 따라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 생각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들을 가장 후회해요.

예림 지난 1년이 파란만장했어요. 가족들과 많이 다투서 차라리 학교가 편했어요. 저의 모든 행동이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많이 울었어요. 생각해보니 문제는 제가 화장을 한 것이었는데 제가 포기를 못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된 거죠. 제게 야단치는 엄마께 아빠가 화를 내며 부부싸움으로 변해서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제 자신이 미웠어요. 몇 시간 후에 엄마가 돌아오셔서 다행이었지만요. 중학교 와서 말을 안 듣는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나빠진 것이 후회되고 마음도 많이 아파요.

미영 스승의 날, 선생님의 중학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날 선생님은 출장 가셔서 안 계셨는데 저희 교실로 배달 온 떡 상자와 카드에 적힌 ‘내 제자의 제자들, 사랑합니다!’를 보고 완전 감동했거든요. 열어보니 떡이 술떡이어서 애들하고 완전 빵 터진 기억이 나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취하는 거 아니냐”고 장난하면서 사진, 동영상도 촬영해서 ‘선생님의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메시지 남긴 게 너무 즐거웠어요. 제 장래희망도 선생님인데 나중에 선생님 되면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해주실 거죠? ^^



2018, 새학년·새학기! 이렇게 꿈꿔요.



지은 새해 가장 큰 결심은 ‘말조심 하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상처받은 경태’ 활동이 소중하게 남았어요. 선생님께 가서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울었거든요.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고 듣기만 하셨어요. 종례시간에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을 야단치시면 어떻게 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게임 하나 할까?”하시며 ‘상처받은 경태’ 활동을 하셨죠. 처음엔 우리 모두 의아해하다가 나중에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친구들이 따돌린다고 느끼기 전에 제가 친구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2학년이 되면 댓글 하나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상처주고 상처받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큰 잘못인지 알게 되었어요.

다혜 저는 한 해 동안 반강제로 시작해서 이제는 습관이 된 **학습 플래너 핵심노트 정리**를 2학년 때에도 꾸준히 해 볼 거예요. 수업을 마치면 2분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하고 그 시간에 배운 요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하게 하시던 게, 처음에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날마다 매시간 수업 요점이 빠곡하게 정리된 노트를 보면 진짜 뿌듯하고 제가 자랑스러워요. 게다가 전교 최우수 플래너 상도 받고나니 내년에는 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영 2학년 때는 꼭 자상한 아버지 같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자상한 아빠 같은 선생님께 배워 보고 싶어요.

나영 부모님과 잘 지내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어쩌다보니 친구들과하고만 폰으로 톡하고 메시지하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하고만 놀고 했는데 아빠엄마가 제 생일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부모님께 매일 짜증만 낸다구요. 생각해보니 친구들 좋아하는 만큼 엄마, 아빠한테 하면 효녀라는 이야기 들을텐데요. 제가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바닥 나 버린 피자에 따로 준비한 과자까지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버린 후에도 이야기는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애들아, 밖이 어두워진다.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야지?”

“아~ 선생님, 좀만 더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저녁 고기 뷔페 갔다가 노래방 가요! 애들아, 쿨?”, “쿨! 쿨!”

녁살 좋고 장난기 많은 한 녀석이 분위기를 선동하자 모두 한껏 들떠 외쳐댔다. 사뭇 어른들 회식 분위기를 흉내 내며 멋쩍게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교사 특유의 절제와 훈화로 난 아이들에게 정중히 실망감을 선사했다. 이 녀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구나.

그리고 보니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마음 언짢은 일도, 안타까운 일도, 그리고 내가 교사인 것이 가슴 시리게 설레던 일도 참 많았다. 그에 비해 오늘처럼 아이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이들을 통해 듣게 된 그들의 2017, 2018!을
보내는 선생님의 편지



어쩌면 마흔 넘은 나보다 가슴에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간직하고도 씩씩하게 생활하는 몇몇 친구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 적도 많았고 한편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나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고 깨닫지 못했던 잘못들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울 같은 녀석들. 선생님이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으로 불편해 할 때는 듄직하게 조언해 주며 위로까지 해 주던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였는지... 가르침은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너희에게 배웠단다.

선생님이 꿈꾸는 2018, 어떤 거냐고 물었지? 별 거 없단다.

또 너희 같은 진풍도의 아이들을 만나 한 해 옥신각신하며 지내겠지.

좌충우돌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너희들을 따라가기에 지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생님은 기도한단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깨닫고 배우게 되겠지.

애들아! 우리 새 학년 새 학기에도 화이팅~~하자! 힘든 때는 서로 쓰담쓰담 해주기, 약속이다!!!

(학생들이 너무 쑥스러워하는 관계로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했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살아있는 영어수업

글/교육홍보팀 사진/이예슬



공동수업 참여교사 (왼쪽부터) 인천송원초 교사 남수현, 인천송천초 교사 김경옥, 인천갈산초 교감 정영랑(지도위원), 인천서곶초(현 인천가현초) 선도교사 최와니, 인천부개서초 교사 서효선, 인천서곶초(현 인천길주초) 교사 윤선미

“그림이 있어서
낱말 뜻이 잘 떠올라요.”

“리듬에 맞춰 끝까지
읽고 나면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배우는 낱말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보여요.
혼자 공부할 때 알게 되는
낱말들도 같이 모으고 있어요.”



영어수업을 마친 4학년 학생들의 반응이다. 선생님에게도 수업 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까?

‘혼자서는 외로워~ 모여서 공부하는 선생님 <Yes, We Can>’ 수업공동체의 공개수업 속에는 함께 하며 길을 만드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가득하다.

공개교실에는 실제 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가득하다. 40분의 수업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호흡이 얼마나 맞는지, 배움이 실제로 어떤 장면에서 일어나는지 현장에서 배운다. 이 수업에는 비밀이 숨어있다. 수업연구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한 동료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Yes, We Can> 수업공동체 5명의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수업을 설계했다.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 아이디어와 학습자료를 공유하며 서로 배워나갔다.

각자 다른 학교이고 서로 먼 거리에 있어서 일과를 마친 저녁시간에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다. 서곶초 최와니 선생님보다 앞서서 선생님들은 각각 수업을 공개했다. 5월 22일 부터 6월 16일까지 총 다섯 번의 수업을 진행하며 5명의 선생님이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고 반성하며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수정해야 할 점은 개선해 온 것이 이번 수업의 참 의미인 듯 하다.

이 공동연구 영어 수업에는 2가지 핵심이 있다. 자발적인 배움을 이끌고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earning how to learn

어휘 다지기로 기초를 튼튼하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의 ‘어휘’이다. 그림을 활용한 어휘 학습은 학습자에게 생동감과 흥미를 주고 시각적 연상 작용으로 오랫동안 기억나게 한다.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이미지와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익힌다. 이는 계획적이며 명시적인 어휘 지도 방법인 Pictionary(Picture+Dictionary) 만들기 방법을 통해서 가능했다. 자신의 Pictionary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사전을 뒤지고, 이미지를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다.



실생활 내용으로 내 삶과 연결되게

배움은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될 때 일어난다. 학습자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다른 교과나 매일 접하는 생활 교육 등 그들의 삶과 최대한 연결시킨 맥락있는 수업으로 이를 이끌 수 있다. 자신에게 더 의미있게 학습동기를 일으키고, 지루할 수도 있는 언어 학습을 지속할 힘을 가지며, 배운 것을 스스로 활용하여 배움이 일어나게 했다.

Now & Here

Yes, We Can!



Share & Future

50분간의 수업 후 협의회에서는 근처에 계신 선생님과 수업이 야기를 나누고 난 후,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나누기를 한다. 수업의 장단점을 논하기 보다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장면과 참관자 본인이 배운 점을 위주로 참가자 모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교사 각자의 배움을 더 깊이 있게 해주는 시간이다. 교사도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혼자 성장할 수 없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길을 만들어가며 맞잡은 선생님들의 손과 노력에 인천 학생의 미래도 밝아질 것을 기대해 본다.



선택하고 집중하며 즐기는 체육수업

글/교육홍보팀 사진/이예슬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공부시간이 적고, 실수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의 학습을 선호할수록, 학교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이 길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¹⁾ 이는 학교 체육시간 중 운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측정된 것이다. 체육 시수는 교육과정에서 정해져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여러 이유로 체육시간을 자유시간, 자습시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조원표, 2016). 신체활동이 수반된 체육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경험상 알 수 있다. 보통의 체육수업은 즐거우면 그만이라고 여기기 쉽다. 자신의 몸을 알고 스스로 움직이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수치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 즐겁기도 하지만, 건강한 체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의 힘을 기르기 위해 밴드 운동을 적용한 관교중학교 조영식 선생님의 체육 수업을 공개했다.

1) 유진은, 노민정 (2017). Group lasso를 통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 144p



창의적 밴드운동을 부위별로 해봐요.
먼저 상체운동부터~.

체육수업에서도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을 합니다.

운동효과나 적절한
방법을 다시 고민하고



친구들 앞에서 우리들만의
방법을 공개합니다.



하체운동도 다양하게 해봅니다.
이두, 삼두, 어깨, 복근, 허리 강화운동 골고루 해요.



이런 운동은 어때?
비복근 대퇴사두, 대둔근 근력 향상에
좋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중학교 수업에서도
배움중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가르치는 방식보다 학생의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기
- 교수활동에 대한 조언보다 본인이 배운 점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기
- 수업에서 좋았던 점, 느낀 점을 나누면서 서로의 다양성 배우기
-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해보고 내 수업과 연결지어 돌아보기
- 본인의 수업경험 함께 나누기
- 실제 수업에 적용할 방법 이야기하기



참관하신 선생님들의 반응

‘밴드 운동’이라는 네글자만 보고 궁금했어요.
신체변화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에게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모둠별로 다니면서 학생에게 질문하며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게 좋아요.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시네요. 평소에도 쉽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11월 30일

2016 NOVEMBER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3			
7	8	9	10			
14	15	16	17			
21	22	23	24			
28	29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악칭 〈청탁금지법〉, 2012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을 통해 부정한 청탁에 대해 'No.'라고 말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나타나게 하자는 거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공직자

국공립 유치원과 학교 교사도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 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남부금액 600,000
금품 × 2~

헉! 순 사랑요?

흥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제가 비단 옷을 입겠나이까?!

학교그리기 제6화 청렴결백 (清廉潔白)

refer to. 국민권익위원회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한빛초 교사 박상영

#1. 적은 금액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앗, 안녕하세요, 시우 어머니?

상담주간인데 그냥 오기가 부끄러워서 커피 한 잔 사왔어요. 이 정도는 괜찮죠?

아니돼요!!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담당 교사는 학생(학부모)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가액기준 3만원(음식물) 이하라도 아니돼요!

난 퇴직했으니 내가 마시겠소

#2. 모두 함께 해도 안돼요.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함께 돈을 모아 선물을 샀어요!

아니돼요!

모두 함께 샀더라도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5만원 이하도 아니돼요!

네가 잘 보관하겠소.

뭔지냐?! 다 안되면 되는 건 없는 겁니까?

왜 없겠소! 있소이다!

#3. 카네이션 드려도 돼요.

우선,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보기 좋겠소~

#4. 축하 불러도 돼요.

선생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하금은 드릴 수 없지만, 축하는 불러도 돼요.

축가는 금품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좋겠소~

#5. 진급한 이후 선물은 가능해요.

꼭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경우, 가액기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이전 학년도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소.

선생님, 지난 1년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정이 없는 것 아닌가요?

허허... 사람 사이의 정이 어찌 금품을 주고 받아야만 있단 말이오...

우리의 정은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줄 때 생기는 것이요.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토마스 모어

우리는 보통의 친구입니다

글/교육홍보팀
사진/이예슬



“**탈북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1990년대 말까지 1천 여 명에 불과하던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말 2만 여명에 이르렀고, 2016년까지 잠정적으로 30,212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인천에는 전국 9.3%에 해당하는 235명(2017년 기준)의 탈북학생이 재학 중이다.

‘인천남북어울림연구회’는 탈북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초(33), 중(12), 고(8) 총 53명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을 맡고 계신 이종숙 선생님(인천장도초)을 만나 탈북학생과의 어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탈북학생이란?

북한 또는 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말한다.

남한 아이들은 북한에서 온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한 아이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한의 학생들이 북한에서 온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학생에 따라 다르다. 그 격차를 줄이고 바른 이해를 위해 ‘남북어울림연구회’에서는 남한과 탈북 학생이 함께하는 1박 2일 진로캠프를 했다. 함께 지내보니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학생들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했거나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보통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북에서 온 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는 남한 학생들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인다. 처음에는 궁금한 것이 많아 호기심을 보이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탈북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면 반드시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학생들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원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표현하면 된다.





학교 친구들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많은 탈북학생들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생활한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북한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출신을 밝히면 차별받고 무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학생들과 생활해보니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잘 적응하고 친구도 쉽게 사귄다. 자신이 북한출신을 밝히지 않았다면 남한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고, 모르는 채로 마음은 불편하게 된다. 북한출신을 밝히는 것은 자신이 판단할 일이지만 지도해 온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자신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밝히고 나면 한결 마음도 가볍고 이후 생활도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고 한다.

탈북학생들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통되는 특성이 없다’라는 점이다. 북한에서의 경험, 가정환경 등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전에 가르쳤던 2학년 학생이 이제는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가고 있다. 이 학생은 중국을 통해서 왔고 한국말을 전혀 못했다. 성격이 싸나워서 주변 친구들과 잦은 싸움을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천천히 한국말을 배워 익혔고 애정을 쏟았다. 현재는 중학교에 진학해 미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여전히 자주 만나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탈북학생은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관심을 주면 변화와 발전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켜보아야 한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특별하고 구체적인 바람보다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탈북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과 하고 싶다. 탈북학생을 맡은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교육과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

탈북학생을 1년 맡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떻게 크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마음과 관심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과는 좀 다르다. 탈북은 양부모 없이 혼자인 경우가 많고 삶이 더 어렵다. 또한 신분세탁을 하거나 자신에 대해 숨기고 싶어 한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통일 철학, 탈북 관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더욱 상처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진심이 통해야 하며 학생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점점 더 늘었으면 한다.



인천교육소식지에서는 2018년 연중기획으로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7년 근무했던 남편과 전직 PD였던 부인이 ‘교사’로서 ‘부부’로서 고민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주한 교육을 돌아켜보며 교사로서의 고민과 함께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묻고 답하는 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스웨덴이 있기까지 스웨덴의 교육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교육 안에 담긴 스웨덴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길 기대합니다.

교육홍보팀

스웨덴, 멀지만 친숙한 나라 ①

무료교육? 무상교육?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다

글/이성원 글짓는 스웨덴 교사

한국보다 겨울이 훨씬 긴 나라 스웨덴. 우리나라의 매서운 겨울 칼바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스웨덴에선 해가 귀하다. 겨울철에는 오후 3시 정도면 주위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낮에도 해를 볼 수 없는 날들이 며칠간 계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해가 짹짹 뜨는 날, 사람들은 첫눈을 맞이한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웃음을 머금은 채 해바라기가 된다.



과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고 대학원까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혹여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을 땐, 대학이나 전공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학비에 대한 부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가 합의하고 국가가 마련한 무상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무상교육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

우리에게 무상교육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든 꿈 꿀 수 있다는 믿음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물론 무상교육이 확대된다고 해도 완전한 기회의 평등을 이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보다 진보한 교육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무상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 그들이 자라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되면 우리 사회에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연대와 평등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개개인에게는 경제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꿈 꿀 수 있는 자유를, 사회적으로는 연대와 평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우리는 때때로 ‘무상’과 ‘무료’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단순히 비용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무료-유료가 맞겠지만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무료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상교육의 의미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함을 말해준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게 만드는 힘. 다른 이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한 사회의 복지 제도가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상교육을 통해 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이케아와 볼보, 노벨상의 나라 정도로만 알려진 스웨덴은 사실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테트라 팩이라 불리는 종이 우유팩,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 등은 모두 스웨덴에서 발명한 기술로 오늘날 우리 삶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스웨덴을 주목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이룬 복지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고 사회 구성원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회.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과 뒤처지면 실패한다는 불안감,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며 겪는 스트레스에 지친 우리들은 좀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사회에 눈길을 주고 있다. 스웨덴을 복지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될 수 있는 그들의 촘촘한 복지 제도에 있다. 1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 휴직, 은퇴 후 지급되는 국가 연금,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 각종 수당과 보조금 등... 물론 이러한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

스웨덴의 무상교육 시스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스웨덴은 교육 또한 무상으로 이뤄진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어서 학비가 들지 않는다. 또한 무상교육의 범위가 등록금, 수업료, 교과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면 무상이기 때문에 준비물이나 체험학습 비용, 급식비 등을 따로 내지 않는다. 학습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마련해주고 체험학습이나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학교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따로 내는 돈이 거의 없다.

스웨덴의 무상교육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부분은 대학교육 역시 무료라는 점이다. 자신이 노력하면 희망하는 학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인 학생들에게

글/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기자

송수연(인일여고), 심가은(인천해송고), 심형주(강화고) 안중필(동산고)

양정빈(인화여고), 오유림(인천고잔고), 오주은(부광여고), 유시영(인천산곡고)



정하지 못한 진로

요즘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안양 관내 거주 초·중·고 재학생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양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민으로는 성적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가 25.9%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를 총괄한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 사업 본부장은 “시 청소년의 정책 환경과 생활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정책, 사

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진로 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1.5%의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충격을 주었다.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잘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지 못했거나, 목표로 둔 학과나 직업, 해당 산업이 실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분야로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저 나의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때까지 나는 하루하루 노력하자.



양정빈 인화여고

오유림 인천고잔고

오주은 부광여고

유시영 인천산곡고

쌓아도 끝없는 스펙 전쟁

이렇게 진로에 대한 걱정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진로를 일찍 정하는 것은 매우 큰 경쟁력을 갖는다. 지난해 한국의대 사회계열을 졸업한 문지영(26·여, 가명)씨는 고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과공부 이외 시간에 ‘경력 관리’에 매진했다. 하지만 경쟁자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론 어렵도 없었다. 시 소속 고교생 기자에 지원해 공부하는 틈틈이 취재하고 기사를 써내기도 하고 크고 작은 단체의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달랐다. 문씨는 2011 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간 문씨가 느끼기에 고교시절 경력 관리란 ‘실패’였다. 대학에선 경력을 더 열심히 쌓았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력을 쌓아왔지만 문씨는 스스로 “성공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았지만, 입시와 취업이라는 ‘경쟁’ 속에 결국 ‘스펙싸움’이 되었다. 문씨는 “남들 내신·학점 관리할 때 활동에 매진할 만큼 고교 때부터 지금까지 경력관리만 해왔는데 허탈했다”며 “요즘 경력은 ‘나만의 이야기’가 중심이라고들 하는데, 실제 면접장에 가보면 경력이 많을수록 ‘스토리’도 풍부해 경쟁력이 있

어 보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경력을 경쟁하고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까지 해내야 하는 요즘 학생들은 말 못할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확대키로 했고, 동시에 취업정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학종, 인턴 등 유관 경력을 중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스펙(Specification, 경력) 쌓기’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리를 도와주는 ‘인천진로교육센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인천 지역 고등학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천진로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인천진로교육센터’는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관련 법의 제정과 인천시의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시설이다. 내부는 ‘커리어 북카페’에서 진로 탐색이 가능하고, ‘마중물 상담실’에서는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선생님과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다양한 강연과 체험이 가능하며, 미리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심형주 강화고

안중필 동산고

송수연 인일여고

‘인천진로교육센터’에서 하는 일

인천진로교육센터는 직업인들을 모시고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직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센터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로체험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하나, 참여가능 인원이 적어 이를 해결하고자 평일엔 학교로 직접 찾아가고 주말에는 희망자를 개별 모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진로 상담도 진행한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찾아오는 부모님의 수가 가장 많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진학 상담을 요청한다고 한다. 더불어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또한 이 곳에는 많은 교사들이 방문하는데 이는 진로교육연수를 받기 위함이다. 방학 때 연수를 진행하는데 이는 학교에서 진로상담 할 때 많은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진로고민과 그 모순점에 대해 인천진로교육센터 민안젤라 선생님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Q 미래에는 직업 하나로 평생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미래세대에는 한 직업으로 평생을 보장받기 힘들다. 우리나라 1인당 직업은 최소 8번 이상 바뀐다고 한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계속 고민해야 진로를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어도 다음이 다시 막막해 질 것이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직업의 2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따라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직장의 이름보다 내가 몰두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그 일을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의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N잡러’라는 말이 있다. ‘N잡러’란 여러 수를 의미하는 N과 잡(job), ~하는 사람이라는 영어 표현(er)이 한데 붙은 신조어다. 근무 형태가 유연한 스타트업이나 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서 N잡러를 찾아볼 수 있다. 안정된 직장에서 그 회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쪼개고 분배해 여러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N잡을 하는 이유도 생계를 위해, 미래를 위해, 또 워커홀릭의 성향 등 다양하다. 앞으로의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점점 더 많아져 갈 테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청년층에서는 N잡러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래에는 일의 개념과 형태 조차 다르게 될 것이다.

Q 요즘 학생들은 뚜렷한 진로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내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끝이 없다. 고민하고 변해가는 나를 알아가는 것도 때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고민하면 진로가 결정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다. 어떤 친구는 똑같은 중3이어도 좀 더 빠르게 “나는 이게 정말 좋아 너무 좋아 이걸 너무 하고 싶어”라고 그 길을 향해간다. 어떤 친구는 “지금은 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선택하고 싶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도 안하고 가만히 스스로를 자책하면 안될 것이지만 노력하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죄책감을 갖거나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Q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진학할 때가 되다 보니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비교적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공을 포기하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지금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학을 갈 때도 그랬던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과는 이게 아닌데 이 성적에 이 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그 과는 별로인데 이 대학은 정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나한테 더 맞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한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후회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반대로 ‘나는 학교 이름이 중요하긴 한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어. 알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할 확률이 낮아진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대학 이름만 딱 결정되고 학교생활이나 학과생활은 다 재미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 뒤에도 계속 방법은 많다.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그 선택 하나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고민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자주 듣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대학 진학 후 일어나는 고민들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편입과 대학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담당자는 직장에서도 많은 고민과 선택이 반복되며 이는 앞으로 살아가며 해내야 하는 숙제이므로 생각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당부했다.

상담을 요청하고 싶거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인천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ice.go.kr>)에 방문하거나 전화(032-420-7621)로 연락 해보는 것은 어떨까?

꽃은 피는 시기가 있다. 개나리는 봄에, 장미는 여름에, 국화는 가을에, 동백은 겨울에 핀다. 길가에서 자라난 꽃도 피는 시기가 있다. 우리도 그렇다. 각자 만개하는 시기가 다를 뿐, 때가 되면 피는 꽃이다. 시기가 늦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나의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때까지 나는 하루하루 노력하자.’라고 생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말을 인용해 보려 한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교육청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글/이명진 인천소양초등학교 행정실장



내가 공직에 들어온 건 계획적이었지만, 지방교육행정 파트에 들어온 건 우연한 기회였다. 군대를 다녀와서 제일 먼저 공고가 난 게 바로 이 지방 교육행정직이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던 터라 무턱대고 치렀는데 밀착 합격하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자존심을 누르고 급수를 낮춘 것도 호재로 작용했지만, 막상 합격하고 보니 이 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가 없었다. 그렇게 발령을 받아 업무를 하면서 느낀 업무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제일 싫어하는 회계업무가 주 업무였던 것이다. 일반 행정직처럼 멋진 기획이나 관리 섹션을 예상한 내게 이 업무 자체는 회의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런 나에게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소신은 먼 나라 얘기였다. 매일 숫자를 보고 결산을 하는 나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었고 민원인 응대에 대한 기본개념은 관심 밖이었다.

인천시교육청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리팀 지출담당을 맡게 되었다. 학교와 스케일 자체가 달랐고 금액이 너무 커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만일 내가 0자 하나 더 집어넣었다간 내 봉급 전체가 아니라 인생이 날아갈 것 같았다. 인건비는 수백억씩, 공사대금은 수십억씩 집행을 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를 여러 번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는 혹시나 한 생각에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고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그 해엔 유난히 교육청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원칙적으로 줘야 할 공사 선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 선금이란 계약을 따낸 업체가 초기 자금이 여의치 않아 교육청에서 미리 인건비, 자재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선금이 막히니, 업체들은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대금을 수시로 요구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상하게도 교육청 자금사정은 갈수록 좋지 않았다. 가장 긴박했던 일은, 봉급날인데

도 통장잔고가 부족해서 교육부 자금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일도 있었으니 나머지 공사대금을 비롯한 청구금액들을 제때 소화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공사대금은 법령상 청구일 기준 7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기에 가능한 한 7일 시점에 맞추어서 나가는 게 다반사였다.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반대로 업체 입장에선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대금이 여의치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래도 관공서를 대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거 같다. 하지만 당시 한 업체 사장님은 너무나 다급했는지 사무실로 오셔서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빠른 결제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내가 다 민망하였다. 하얀 머리와 다크써클의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니 측은하기까지 하였지만 우리 측도 워낙 자금난에 시달려서 뭐라 딱히 말씀드릴 게 없었다. 다만 7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 가서 기다리시라고 정중히 답변을 드리고 밖에 까지 가서 배웅해 드렸다.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 해당 서류를 검토하다가 자금추계를 한 번 더해 보기를 여러 번. 일단 교육부나 시청에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관건이라 더 이상 내가 할 건 없었다.

우연인지 다행인지 생각보다 자금이 그 달은 빨리 들어왔던 거 같다. 바로 결제를 올리고 청구 후 3일 뒤 자금이 나갔고 그렇게 그 사장님은 잊은 채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12월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 한통이 걸려 왔는데 바로 그 사장님이었다. 생각보다 빨리 결제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게 요지였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고 잠깐 밖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순간 그 표현이 뭔지는 몰라도 나가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사장님 요즘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 법령에 기초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자금난에 허덕여서 그렇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결제해 드리는 게 제 업무입니다. 혹시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아마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일 거고 앞으로도 상식에 기초해서 공무원들을 상대하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 번창하세요라는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런 멋있는 말을 내 주제에 한 것이었다. 수화기를 두고 한동안 가슴이 쿵쥔거리고 뭔가 모를 벅참이 올라왔다. ‘내가 제대로 말한 거지?, 이명진 그렇지?’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날은 업무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잘 된 얼마 안 되는 날 중의 하나였다. 가끔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이 취하면 흥해 겨워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곤 한다.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나 자신을 다독이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인간은 원래 간사한 동물이라 환경이 바뀌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나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교육청에서 나와 작은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적은 규모의 지출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대금결제는 최대한 속사포로 진행을 한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업무 하나가 어느 업체 사장님에겐 큰 고마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위상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기를 믿기에...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썩는구나...”

Incheon
Bupyeong Public
Library

칸칸이 막혀있는 답답한 열람실은 가라~!

休 앤 Book

인천부평도서관, 인천공공도서관
최초 북카페형 열람실 **休 앤 Book** 운영

인천 공공도서관 최초 북카페형 열람실
「休 앤 Book」 오픈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영란)에서는
지난 12월 26일 인천 공공도서관 최초로
북카페형 열람실 「休 앤 Book」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休 앤 Book」은 **편안한 휴식과 책이 있는 공간**이란 의미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노트북 등 기기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130석 규모의 오픈형 열람실이다.

편리하고 쾌적한 북카페형 환경
좌석표 발급 없이 누구나 언제나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도서관 이용이 쉬워졌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부평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ice.go.kr/bupyeong>)
또는 독서문화과(032-510-7312~4)로 문의하면 된다.

